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1. 일시: 2025. 1. 8.(수) 10:00~11:00

2. 장소: 일송기념도서관 5층 G-SQUARE GAIA(회의실 5,6)

3. 참석위원

- 위원장: 최성찬(부총장)
- 위원(학교대표): 홍석민(D-1처장)
- 위원(학생대표): 김동규(총학생회장), 우연정(총학생부회장), 이승주(총학생회 복지국장)
- 위원(교수대표): 조지현(법학과)
- 위원(직원대표): 이덕신(해부신경생물학교실)
- 위원(관련전문가): 김성희(한국투자증권), 황규선(강원연구원)
- 간사: 박용준(예산팀 팀장), 권기범(예산팀 직원)

4. 회의 안건 및 주요내용

가. 회의 안건

- 1)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 2024 대학운영 현황 및 2025 운영방향
- 3) 2025 등록금 책정(안)

나. 주요내용

- 2025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며 2025 등심위 위원을 소개하였고, 1차 등심위 개회의 목적 및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함.
- 학교대표가 등심위 운영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정을 안내하며 등심위 각 위원은 학교대표, 학생대표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위촉되었음을 알림. 이후 2025 등심위 회의일정 및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한도와 산정방법에 대해서 소개함. 교육부에서 발송한 공문 내용 등을 설명하며 가급적이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달함.
- 학교대표가 2024 대학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특히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함. 입학정원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신입생 충원율도 문제가 없으나 중도이탈 등으로 인하여 대학정보공시 지표상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반대로 총 교육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정지원사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 여건 향상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간서명란]

김동규	황규선	이덕신
-----	-----	-----

- 학교대표가 2025 예산운영 방향과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며 등록금 수입 추정의 근거가 되는 학부 등록생 수 추정 방식을 안내함. 최근 3개년도 등록생 비율 및 중도이탈률을 고려한 근사치 추정을 통해 2025학년도 등록생 비율을 산정하였음을 알림. 최근 편제정원 대비 등록생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2024학년도는 의과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등록생이 급감하였다고 설명함. 따라서 2025학년도 추정치 역시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며 각종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함. 이에 따라 전년도 편성한 대비 등록금 수입이 감소한다고 추정하였을 때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41.7억원의 추가 수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함.
- 학교대표가 최근 등록금 책정 및 수입 현황을 설명하며 2012년 이후 등록금이 계속 동결 또는 인하되어 2012년 대비 2024년 등록금 수입이 153.1억원 감소하였다고 알림. 이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5.49%)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학부 평균등록금 5.485%, 대학원 평균등록금 5.482%, 계절학기 수업료 6.67% 인상)을 제시함. 이렇게 등록금을 인상하게 될 경우 국가장학금Ⅱ 참여가 불가능해지지만, 교육부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내년도 국가장학금Ⅰ 지원액은 증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등록금 인상안을 적용하고 교내장학금 지급률을 현행 수준으로 맞춰 학생들에게 지급하였을 때 등록금 수입이 총 22.8억원(학부 기준 21.3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림.
-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설명이 완료된 후, 위원장이 위원들 간의 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 회의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였음을 밝힘.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텐데, 대학 등록금이 현재 장기간 동결 또는 인하 기조가 유지되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까지 왔음을 강조함. 직접 등록금을 내는 재학생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한림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대학의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 고려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
- 교수대표가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원인건비도 장기간 동결되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의견을 밝힘.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등록금 동결 이후 등록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해왔고, 학교 측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한 재정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적자 폭이 매우 커서 학교 운영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함. 물론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의 의견이 중요하지만, 학교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학생들의 전향적인 판단을 요청함.

[간서명란]

김응규	황규선	이석신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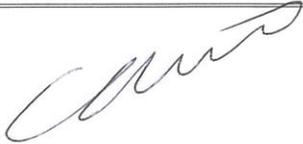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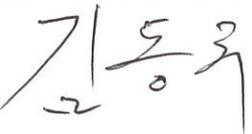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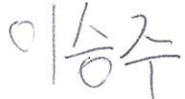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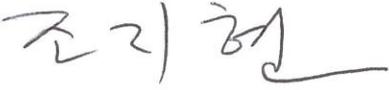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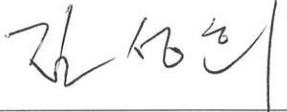
- 외부위원이 지난 10여 년 동안 사회 전반을 지켜봤을 때 국민들의 납세액이 증가하면서 행정 서비스의 질도 꾸준히 높아져왔다고 언급함. 반면 대학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어왔고, 교직원들의 인건비도 호봉 상승분 외에 실질적인 인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 이로 인해 계속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경우 대학 교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함. 한림대학교의 경우 교직원 이직률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봤을 때도 이제는 한계까지 온 것으로 보이며, 등록금 동결을 통해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교육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함. 이에 대해 학교대표 역시 인건비 동결로 인해 타 대학들과의 경쟁 속에서 좋은 교원들을 초빙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학생대표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학생들 역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외에 여러 방향으로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함. 그동안 등록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비용들이 계속 증가해온 상황에서 학생회에서도 재학생들에게 추가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고 밝힘.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배정되는 예산이 증액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학교대표 역시 동의한다는 뜻을 표명하며 학생회에서 기존 사업 및 신규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협의를 통해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힘. 그 외에도 학생 측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의 학생지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청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알림. 지난해 학교 측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등록금 수입이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도 재정지원사업 등으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추후에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투자하겠다고 설명함.
- 학생대표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국가장학금Ⅱ가 신입입생에게 지원되는 장학금인지 질의함. 이에 대해 예산팀장이 신입입생 지원 국가장학금은 현재 폐지된 입학금을 보전하기 위한 장학금이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국가장학금Ⅱ는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이라고 설명함.
- 위원장이 등심위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등록금 인상에 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오늘 논의를 통해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학생들도 동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등록금 인상분과 관련하여 학생 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가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정리함. 위원장은 학생대표 측에서 2025학년도 예산편성 관련 요구사항 및 의견들을 정리하여 예산팀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에 대해 각 위원들이 동의하며 본 회의를 종료함.

붙임 2025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간서명란]

김동주	황규선	이택신
-----	-----	-----

202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 서명부(1차)

구분	직위	소속	성명	서명
학교대표	위원장	부총장	최성찬	
	위원	D-1처장	홍석민	
학생대표	"	2025 총학생회 회장	김동규	
	"	2025 총학생회 부회장	우연정	
	"	2025 총학생회 복지국장	이승주	
교수대표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지현	
직원대표	"	의과대학 해부신경생물학교실	이덕신	
전문위원	"	한국투자증권 춘천지점	김성희	
	"	강원연구원 규제·공공팀	황규선	